

 보건복지부		보 도 참 고 자 료	
배 포 일	2018. 3. 18. / (총 4매)	담당부서	공공보육T/F팀
팀 장	김 유 미	전 화	044-202-3552
담 당 자	임 민 태		044-202-3556

독감에 걸린 어린이집 선생님, 걱정 마세요!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체교사 보내드려요.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,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.
- 작년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, 건강 검진, 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 담임 교사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왔었다.
- 올해부터는 질병, 가족상(喪)까지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넓히고,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교사의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- 또한, 상시·긴급 지원 외에도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의 적응이나, 현장체험 시 장애영유아를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관련 지침을 개선하였다.
- 「대체교사 지원 사업」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, 교육 등으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,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

- 보육교사의 연가,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 1~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(어린이집 지원시스템)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, 질병,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의 경우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팩스(Fax)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.
- 대체교사 신청을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여,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알린 후 해당 일에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.
- 보건복지부 공공보육TF 김유미 팀장은 “’09년부터 시작한 대체교사지원사업이 재충전 기회 부여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하였고,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20, 3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었다”고 밝혔다.
- 또한 “올해 대체교사 2,036명을 채용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고, ’22년까지 총 4,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을 계속 높여 가겠다”고 설명했다.

- <붙임> 1.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개요
2. 어린이집 지원사업 대체교사 이용 수기

붙임 1

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개요

- (목적) 담임교사가 연가(주중 5일/인) 연가 사용,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파견
- (지원대상)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(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)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

※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,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

- (추진경과) '18년도 2,036명, 228억원

구분	'09년	'13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대체교사(명)	482	500	449 (9월 이후 추경 +353)	1,036	1,036 (8월 이후 추경 +1,000)	2,036

-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

구분	우선순위	지원 사유	지원 일수	비고
상시	1	보수교육 (직무교육 우선 지원)	5일 최대 10일	사전 신청
	2	연가 (본인 결혼 우선 지원)	1~5일 최대 5일	
	3	예비군 훈련 건강검진*	훈련 기간 1일	
긴급	최우선	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	기간 제한 없음	수시 신청
	가족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	
	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2일	
	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2일	
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	
	본인 질병 등 사고	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	1~5일 최대 10일	
	모성보호	유산 (~11주미만(5일)/12~15주(10일))	5일 최대 10일	
		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	1일 최대 3일	

-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,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 가능

※ (예시)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, 장애영유아·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 등

붙임 2

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수기 [대체교사]

<구급차를 타고, 서울특별시 홍선기>

“원장님! 지금 바쁘시죠? 긴급 상황이라 전화드렸어요. 놀이터에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놀러와서 정릉 천으로 아이들하고 산책하러 왔어요. 그런데 잠시 물먹고 쉬는 시간에 아이가 돌계단 있는 쪽에서 발을 헛딛는 것 같아 붙잡으려다가 oo 선생님이 몸으로 떨어졌는데 얼굴을 많이 다친 것 같고 한동안 못 일어나시는 것을 보니 뇌진탕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. 119에 신고하고 위치 말씀드리고 대기 중입니다. 얼른 오셔야 할 것 같아요. 원장님” (중략)

다행히 그날은 다음날이 토요일인 금요일이었다. **월요일부터 대체교사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생각나는 것은 ‘육아종합지원센터’뿐이었다.** 지역인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를 하여 대체교사지원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았다. (중략)

불현듯 2003년 보육교사로 재직 했을 당시 상황이 떠올랐다. 목요일 오후 근무 중 와병(臥病)상태로 오랜 시간 투병하고 계시던 시어머님께서 위독하시다는 가족들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. 주임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연차휴가나 병가는 꿈도 꾸지 못할 보육교사의 복지가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교사가 단 세 명인 상황에서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. 다음날 내려가면 안 되는 지 묻고 있는 도리에 어긋난 며느리의 모습이 되어있었다. 그래도 선뜻 얼른 위독한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보내주신 원장님 덕분에 막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 어머니 마지막 목욕도 시켜드리고 다음날 오후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다. 그러나 장례는 ‘삼우제(三虞祭)’ 까지를 말함이었고 처음 가족장례를 치르게 된 교사시절 나는 그 전화를 원장님께 드리며 너무 죄송한 마음이 앞서있었다. 그때 만약 긴급대체교사 제도가 있었다라면 혼자되신 시아버님의 슬픔과 너무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여윈 남편을 위로하며, 내 스스로도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3년간의 둘째 며느리로서 시어머님의 소천(召天)하심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장례를 치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. 교사로서 어린이집 동료교사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불안함으로 결국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2003년 한여름이 14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처럼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.

그날 생애 최초로 **구급차를 타고** 병원으로 이동했던 선생님은 입원과 통원치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보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.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. 협조해주신 학부 모님 그리고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와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, 그리고 양보해주신 어느 이름 모를 어린이집의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.